

민주 우세 속 전직 구청장 '존재감'



민주당 안도걸 후보,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 진보당 김미화 후보, 무소속 김성한 후보

총선 관심지를 가다

광주 동남을

4·10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는 광주 8개 선거구 중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맞서 전직 구청장을 지낸 김성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면서 관심지역으로 좁히고 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나섰지만, 컷오프(경선 배제)되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여기에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보수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평가되는 곳에 출마해 분전하고 있고,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와 진보당 김미화 후보 등도 '민주당 일당독점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권자 "어찌 됐든 민주당"=1일 찾은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갈렸다. "미워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 반면 "당이 아닌 후보를 보고 뽑겠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남광주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하는 장모씨는 "무소속 김성한 후보가 동구청장을 지낸 당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응원하지만 광주 사람들은 물론 우리 가족도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라며 "다른 지역이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것처럼 광주는 민주당 '백그라운드'다"고 말했다.

남광주시장에서 굴비 가게를 운영하는 구모씨는 "민주당 안도걸 후보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하면서 일을 많이 했으니 (예산 확보 등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까지 광주는 '어찌 됐든 민주당'이라는 분위기가 있어 안 후보를 응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인시장에서 흥어를 판매하는 김정단(여)씨는

5명 후보 출마 치열한 선거전 민주당 텃밭서 무소속 바람 부나 '미워도 민주당' vs '인물론'

"정권 심판위해 민주당 뽑아야" "당 대신 인물" 다양한 표심 국힘·개혁·진보 "일당독점 심판"

"광주-전남은 뭐니 뭐니 해도 민주당"이라며 "김성한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무소속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이미 (승리의) 분위기는 민주당이다"고 말했다.

안도걸 후보는 "지역주민이 바라시는 잘사는 광주, 맥박이 다시 뛰는 원도심을 만들 수 있는 청사진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오직 유권자만 바라보고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존재감 상당한 전임 청장= 두 시장에서 만난 상인·손님들은 민주당 후보인 안도걸 전 차관을 지지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지만 안 전 차관의 '라이벌'로 꼽히는 후보이자 동구청장을 지낸 김성한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뚜렷한 모양새였다.

남광주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순인(여)씨는 "김 후보가 동구청장 시절에 일을 잘했다. 민주당으로 나오면 좋았을 텐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많은 이들이 김 후보를 향해 '짤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당이 없는 상태로 당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남광주시장에서 신발을 판매하는 임모(여)씨 역시 "김 후보는 구청장 시절에 상인들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해왔다"며 "시장에도 자주 오고 상인들을 위해 뛰어왔는데 공천을 받지 못해 너무 안타

깝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무조건 민주당만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한다"며 "오히려 다양한 민주 진영 세력이 하나가 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당에만 '몰빵'하기보단 무소속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당보다는 인물에·정책 제시 등에 관심=당보다는 인물론에 초점을 맞추는 유권자들도 상당수였다. '민주당은 해준 것이 없고 광주시민은 이용만 당했다'는 이유다.

남광주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이영식씨는 "동구에서 나고 자라 80년 가까이 살았지만 지역을 생각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낙후했다"며 "매년 민주당을 뽑아줘도 바뀌지를 않으니 견제는 안 되고 경제는 그대롭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밀어주고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인시장에서 오란다 과자 가게를 운영하는 박천식씨는 "광주 내에서도 서구 양동시장과 동구 대인시장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이 큰 면적의 시장에 빈 가게가 많은 이유는 시설 지원도, 청년 사업 등도 없기 때문이다. 노후화된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필요하고,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물론에 박은식 국민의힘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며 "계속 이틀과 얼굴을 알리며 남은 기간 후회 없이 유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진보당 후보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개혁으로 가는 총선이 돼야 한다"며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정치도 심판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광주 동남을에는 민주당 안도걸 후보,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 진보당 김미화 후보, 무소속 김성한 후보 등이 표발을 다지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민형배 "정권 심판·지하철 공사 불편 최소화"

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1일 "순직 해병 수사 개입 등 윤석열 정권 부역자를 심판하고 지하철 공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중앙과 지역을 이은 1+1 공약을 내놓았다.

민 후보가 밝힌 중앙 공약은 순직 해병 수사 개입 사건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민 후보는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원 시민소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순직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도피 출국은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번 총선에 승리하고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 반드시 책



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지역 공약으로 지하철 2호선 공사 과정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제시했다. ▲시민 참여 대응단 운영 ▲시민 응답형 콜버스(DRT) ▲지하철 개통에 맞춰 내 집까지 편리한 도로·차전자·보행로 등 안전 교통망 확보 등도 포함됐다.

민 후보는 "광산구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외에도 산정지구 1만3000호 공공택지 등 개발 현안이 많다"며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광주시, 주민들 사이의 이견을 중재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희숙 "광주에서 기적의 1석 만들어달라"

진보당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일 광주를 찾아 "광주에서 기적의 1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22대 총선 목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5석 이상 당선으로 국민들께 사랑받는 새로운 대표 진보정당으로 인정받는 것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민주당과 연합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지역구에서 64명의 후보가 옹호되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러한 진보당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국민들께서 진보의 바람을 만들어주고 계신 만큼 진보의 바람을 광주에서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에서 진보당 1석은 노동자를 살



리고, 광주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살리는 1석3조로 광주시민의 위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면서 "광주에서 8석 중 딱 1석인 복구를 윤민호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표는 "윤민호 후보는 광주 북구에서 진보정치 20년의 외길을 걸어오며 항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왔다"면서 "광주가 키운, 광주시민을 위한 진보정치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진보당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7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복구를 윤민호 후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0~7세 월 50만원·8~24세 월 30만원'

더불어민주연합 기본소득 공약... "부자감세 원상회복시 당장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일 0~7세에 월 50만원, 8~24세에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탄탄하게 책임지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천억원(0~7세 14조 5천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연합의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라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등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